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년 02월 32권 1호

pISSN 1229-8328
J Korean Med Classics 2019:32(1) 191-204
https://doi.org/10.14369/jkmc.2019.32.1.191

JKMC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錢乙 瀉白散의 方義에 대한 小考

- 吳鞠通의 비판을 중심으로 -

[1]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敎室 敎授 · [2]韓醫學古典硏究所 副所長
白裕相[1,2]*

A Study on the Meaning of Xiebaisan Made by Qianyi

- Focused on Wujutong's Critiques -

Baik Yousang[1,2]*
[1]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2]Deputy Directo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Focusing on Wujutong's critiques for Xiebaisan misus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Xiebaisan and its constituent drugs have historically been used by medical doctors and analyzes the disputes in the controversial context with a summary.

Methods : The contents of Xiebaisan prescription were collected and examined from the past literature and medical database,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debate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contents.

Results : In the results of exploring the opinions of medical doctors, in general, Xiebaisan and Sangbaipi, a major medicinal drug, were seen to play a role in the work of reinforcing and reducing. In particular, Ye Tianshi was used with cold and pungent medicine to Xiebaisan as a method of releasing heat with pungent medicine for acute fever in spring, and at the same time, care was taken to avoid depletion of secretion in the stomach.

Conclusions : Wujutong's critique is that in early symptoms of viral infection, the misuse of Xiebaisan seems to emphas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 illness. It is hoped that further research on Xiebaisan incremental medication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to help clinical applications of Xiebaisan system medication.

Key words : Xiebaisan(瀉白散), Qianyi(錢乙), Wujutong(吳鞠通), fangyi(方義), sangbaipi(桑白皮)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0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Received(February 8, 2019), Revised(February 12, 2019), Accepted(February 12,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Ⅰ. 序論

瀉白散은 1119년 간행된 錢乙의『小兒藥證直訣』에 처음 나오는 처방으로 五臟辨證에 따라 肺實證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이며, 역대로 瀉白散 계열의 많은 加減方들이 임상에서 사용되어 왔다. 淸代의 溫病學者인 吳鞠通은 『溫病條辨·瀉白散不可妄用論』에서 瀉白散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는데, 이미 수백년 전의『小兒藥證直訣』에 수록된 瀉白散의 誤用을 뒤늦게 언급한 배경에는 당시에 瀉白散 및 그 加減方이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상황이 있었다. 吳鞠通의 비판과 관련하여 역대 여러 醫家들이 瀉白散의 方義에 대하여 주장한 것을 살펴보면, 瀉白散의 처방 성격이 補瀉, 寒熱, 表裏 가운에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일부 의견이 분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대 醫家들이, 瀉白散과 그 구성 약물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논쟁의 맥락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구성 약물 가운데에서는 桑白皮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瀉白散의 誤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小兒藥證直訣』의 臟腑辨證에서 肺의 虛實에 대하여 정리한 연구[1], 역대 醫家들의 瀉白散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연구[2][3] 등 瀉白散이나 瀉白散證의 개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吳鞠通의 '瀉白散不可妄用論'에 한정하여 진행된 연구는 드물었다[4]. 蘇旭의 연구에서는 본인의 임상 경험과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瀉白散의 方義를 설명하였으나 여러 醫家들의 주장을 충분히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5].

1) 于筠, 鄭愛. 小兒藥證直訣肺系疾患臨證特點淺析. 新疆中醫藥. 2016. 34(6). pp.1-2.
2) 趙暉, 任耀全. 小義瀉白散. 杜區中醫藥. 2009. 11(24). p.152.
3) 杜天植. 錢乙瀉白散趨義. 陝西中醫. 1994. 15(3). p.134.
4) 蘇旭. 關于吳瑭氏瀉白散不可妄用論一文的機點意見. 黑龍江中醫藥. 1966. 2(6). pp.42-43.
5) 蘇旭은 瀉白散이 안으로 肺熱을 瀉할 뿐만 아니라 外邪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며, 外感風寒의 表證만 있거나 안으로 鬱熱이 없고 肺氣가 虛寒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吳鞠通이 瀉白散으로 陰虛로 인한 虛熱을 치료한다고 한 것과 醫案을 통하여 그 폐해를 과장한 것을 비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문헌과 의학자료 DB로부터 瀉白散의 方義에 대한 내용을 수집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을 분석하여 논쟁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앞으로 瀉白散의 方義를 중심으로 加減方들이 어떻게 분화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 瀉白散 계열 처방의 임상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本論

1. 錢乙 瀉白散의 개요

瀉白散은 1119년에 初刊된 錢乙의『小兒藥證直訣』[6]에서 처음 제시된 처방으로서 瀉肺散이라고도 하는데, 명칭은 五臟辨證에 따라 白色으로 상징되는 肺를 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小兒藥證直訣』 이후 다양한 구성의 瀉白散이 사용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瀉白散은『小兒藥證直訣』에 수록된 錢乙 瀉白散을 지칭한다. 錢乙의 瀉白散 原方은 地骨皮, 桑白皮, 甘草 등으로 구성되며 전탕 시 粳米를 넣는다.『小兒藥證直訣』에 나오는 瀉白散의 주치증은 小兒의 肺가 盛하여 호흡이 가쁘면서[氣急] 나타나는 喘症과 咳嗽이다.

瀉白散[7][8] 又名瀉肺散
治小兒肺盛氣急, 喘嗽.
地骨皮[洗去土, 焙[9]], 桑白皮[細剉, 炒黃[10], 各一兩], 甘草[炙, 一錢[11]].

6) 白裕相. 小兒藥證直訣 傳本에 대한 小考. 韓國醫史學會誌. 2004. 17(1). p.108.
7)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56.
8) 瀉白散 : 이 처방의 主治證에 대하여『醫方類聚』卷二百五十四의 인용 부분에서 "咳嗽而後喘, 面腫身熱."이라 하였다.
9) 洗去土, 焙 : 원래는 빠져 있으나 聚珍本과『幼幼新書』卷十六第三의 인용 부분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0) 細剉, 炒黃 : 원래는 빠져 있으나 聚珍本과『幼幼新書』卷十六第三의 인용 부분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1) 炙, 一錢 : 聚珍本,『類證注釋錢氏小兒方訣』卷五,『幼幼新書』卷十六第三의 인용 부분 등에는 '炒半兩'으로 되어 있다.

www.kci.go.kr

右剉散, 入粳米 一撮[12], 水二小盞, 煎七分[13], 食前服[14].

『小兒藥證直訣』에서 瀉白散이 사용되는 조문 중 肺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우선 '肺盛復有風冷'의 조문에서 먼저 瀉白散을 써서 散肺한 후에 大靑膏를 쓰라고 하였다. 참고로 大靑膏[15]는 肝實證의 小兒風熱에 쓰는 처방이다[16].

肺盛復有風冷[17]

胸滿短氣, 氣急喘嗽上氣, 當先散肺, 後發散風冷, 散肺瀉白散, 大靑膏主之. 肺只傷寒則不胸滿[18].

여기서 肺盛은 胸滿, 短氣와 氣急, 喘嗽, 上氣를 말하는 것이며 肺盛을 해소하는 散肺의 목적으로 瀉白散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肺只傷寒則不胸滿"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병의 시작이 단순한 傷寒의 外感病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風冷을 發散하는 데에 肝實證에 사용하는 大靑膏를 쓴 이유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張山雷는 이 조문에서 瀉白散을 쓴 것 자체를 착간으로 보았으나 風冷에 感하기 전에 내부에 肝熱이 있었거나 혹은 肝이 虛한 상태에서 外感으로 인해 內熱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다. 肺와 肝이 함께 병든 경우로서 또 다른 '肺病勝肝'의 조문을 살펴보면, 瀉白散을 사용하면서 地黃圓[19]을 겸용하였다.

肺病勝肝[20]

肺病春見[一作早晨], 肺勝肝, 當補腎肝, 治肺藏. 肝怯者, 受病也, 補肝腎, 地黃圓. 治肺, 瀉白散主之.

이는 肝이 약한 상태에서 肺病이 발생한 경우로, 원래 腎을 補하는 처방이면서 함께 肝도 같이 補하는 地黃圓[21]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精血이 함께 虛한 상태로 추정된다. 반대로 肝熱이 肺로 전해져 발열과 갈증이 있고 喘悶하는 경우에도 肝을 瀉하는 瀉靑圓[22]과 함께 瀉白散을 쓴다고 하였다.

肝熱[23]

手尋衣領及亂捻物, 瀉靑圓主之. 壯熱飮水, 喘悶, 瀉白散主之.

瀉靑圓은 大靑膏와 함께 肝實證의 風熱에 사용하며 心病에도 활용하는데[24], 大靑膏가 氣血이 虛한 상황에 쓰는 것에 비하여, 이미 병세가 성해져서 脈이 洪實하고 搐搦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밖에 肺 자체에 虛熱이 있을 경우에도 瀉白散을 사용하여 散하는데 이때에는 소량 복용하라고 하였다.

肺虛熱[25]

12) 一撮 : 『幼幼新書』 卷十六第三의 인용 부분에는 '百粒'으로 되어 있다.
13) 七分 : 聚珍本과 『幼幼新書』 卷十六第三의 인용 부분에는 '六分'으로 되어 있다.
14) 食前服 : 聚珍本, 『幼幼新書』 卷十六第三과 『醫方類聚』 卷二百四十五의 인용 부분 등에는 '食前溫服'으로 되어 있다.
15)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54 : 大靑膏, 治小兒熱盛生風, 欲爲驚搐, 血氣未實, 不能勝邪, 故發搐也. 大小便依度, 口中氣熱, 當發之. 天麻末一錢, 白附子末生一錢五分, 靑黛研一錢, 蝎尾去毒生末, 烏蛇梢肉酒浸焙乾取末各一錢, 朱砂研, 天竺黃研, 麝香各一字匕. 右同再研細, 生蜜和成膏, 每服半皂子大, 至一皂子大. 月中兒, 粳米大, 同牛黃膏, 溫薄荷水化一處, 服之. 五歲已上, 同甘露散服之.
16) 白裕相. 『小兒藥證直訣』의 五臟辨證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6). pp.149-151.
17)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6.
18) 肺只傷寒, 則不胸滿 : 聚珍本에는 이 八字가 없다. 『張山雷箋正』에는 肺只傷寒이 肺不傷寒으로 되어 있다.
19)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56 : 地黃圓, 治腎怯失音, 顱開不合, 神不足, 目中白睛多, 面色晄白等方. 熟地黃炒稱八錢, 山茱萸, 乾山藥各四錢, 澤瀉, 牧丹皮, 白茯苓去皮各三錢. 右爲末, 煉蜜圓如梧子大, 空心, 溫水化下三圓.
20)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9.
21) 白裕相. 『小兒藥證直訣』의 五臟辨證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6). p.152.
22)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5-56 : 瀉靑圓, 治肝熱搐搦, 脈洪實. 當歸去蘆頭切焙秤, 龍腦焙秤, 川芎, 山梔子仁, 川大黃濕紙裹煨, 羌活, 防風 去蘆頭切焙秤. 右件等分爲末, 鍊蜜和圓雞頭大, 每服半圓至一圓, 煎竹葉湯, 同沙糖溫水化下.
23)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5.
24) 白裕相. 『小兒藥證直訣』의 五臟辨證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6). pp.149-152.

www.kci.go.kr

屑深紅色, 治之散肺虛熱, 少服瀉白散.

또한 '咳嗽'의 조문에서 "有肺盛者, 咳而後喘, 面腫, 若飮水, 有不飮水者, 其身卽熱, 以瀉白散瀉之."라고 하여[26], 肺에 喘症이 있고 얼굴이 부으며 속에 水氣가 있고 熱이 나는 증상에 瀉白散으로 瀉하라고 하였다. 또한 張氏의 9세 孫을 치료한 醫案[27]에서는, 肺熱證을 오래 앓은 경우에 虛해진 脾를 補하는 史君子圓[28], 益黃散[29] 등을 먼저 먹인 후에 瀉白散을 써서 肺를 瀉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겉으로 표현되는 瀉白散의 주치증은 小兒의 氣急과 喘咳 또는, 肝의 虛證, 實證 모두에서 肺와 肝이 같이 병든 경우에 사용하였으며, 肺 자체에 虛熱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하였다. 또한 肺가 盛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는 水氣 등으로 인한 面腫도 포함되어 있었다.

2. 吳鞠通의 瀉白散 誤用에 대한 경계

吳鞠通은 『溫病條辨·瀉白散不可妄用論』에서 肺火로 인한 皮膚蒸熱, 日晡尤甚, 喘咳氣急, 面腫, 熱鬱肺逆 등의 증상에 瀉白散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30], 이를 함부로 써서 나타나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즉, 瀉白散을 外感의 表證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면 邪氣를 오히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병을 고착시키게 되며, 특히 瀉白散 구성 약물 중 桑白皮와 地骨皮가 주로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자신의 치료 경험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인 瀉白散 誤用의 결과로 고질적인 만성 咳嗽가 생겨서 치료하기 힘들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吳鞠通은 명대 李時珍이 瀉白散에 대하여 肺를 瀉하는 방제 중 표준이 되는 準繩이라고 말한 것과 王晉三, 葉天士 등이 함부로 瀉白散을 사용한 것을 비판하였다[31]. 비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若兼一毫外感, 卽不可用. 如風寒, 風溫正盛之時, 而用桑皮地骨, 或於別方中加桑皮, 或加地骨, 如油入面, 錮結而不可解矣[32]. 【溫病條辨·瀉白散不可妄用論】

吳鞠通은 瀉白散만이 아니라 다른 처방을 쓸 경우에도, 桑白皮와 地骨皮가 風寒인지 風溫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外感의 邪氣를 안으로 끌어들여 고착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金匱要略·瘡癰腸癰浸淫病脈幷治』의 王不留行散 관련 조문[33]에 대한 仲景自注에서 "小瘡卽粉之, 中大瘡但服之, 產後亦可服, 如風寒, 桑根勿取之."라고 한 것과 이에 대하여 沈目南[34]이 風寒의 表邪가 경락에 있을 때 桑白皮가 이를 끌어내린다고 언급한 예를 근거로 들었다[35]. 특히 桑白皮에 대해서는 箕星[36]의 精을 받아

25)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6.
26)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4.
27)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43-44 : 東都張氏孫, 九歲, 病肺熱. 他醫以犀, 珠, 龍, 麝, 生牛黃治之, 一月不愈. 其證嗽喘悶亂, 飮水不止, 全不能食. 錢氏用史君子圓, 益黃散. 張曰, 本有熱, 何以又行溫藥. 他醫用凉藥攻之, 一月尙無效. 錢曰, 凉藥久則寒不能食, 小兒虛不能食, 當補脾. 候飮食如故, 卽瀉肺經, 病必愈矣. 服補脾藥二日, 其子欲飮食, 錢以瀉白散瀉其肺, 遂愈. 張曰, 何以不虛. 錢曰, 先實其脾, 然後瀉肺, 故不虛也.
28)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01 : 史君子圓, 治臟腑虛滑, 及疳瘦下利, 腹脇脹滿, 不思乳食, 常服安蟲補胃, 消減肥肌. 厚朴 去粗皮 薑汁塗, 甘草 炙, 訶子肉 半生半煨, 青黛各半兩, 如是兼驚及帶熱瀉, 入此味, 如只變疳不調, 不用此味, 陳皮去白一分, 史君子去殼一兩, 麵裹煨熱, 去麵不用. 右爲末, 煉蜜圓, 如小雞頭大, 每服一圓, 米飮化下, 百日以上一歲以下服半圓, 乳汁化下.
29)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7-58 : 益黃散, 又名補脾散. 治脾胃虛弱, 及治脾疳, 腹大身瘦. 陳皮去白 一兩, 丁香二錢一方用木香, 訶子炮去核, 靑皮去白, 甘草炙各五錢. 右爲末, 三歲兒, 一錢半, 水半盞, 煎三分, 食前服.
30) 吳鞠通著, 丁彰炫譯. 國譯溫病條辨. 서울. 집문당. 2004. p.730 : 錢氏制瀉白散, 方用桑白皮, 地骨皮, 甘草, 粳米, 治肺火皮膚蒸熱, 日晡尤甚, 喘咳氣急, 面腫, 熱鬱肺逆等證.
31) 吳鞠通著, 丁彰炫譯. 國譯溫病條辨. 서울. 집문당. 2004. p.730 : 曆來注此方者, 只言其功, 不知其弊, 如李時珍以爲瀉肺諸方之准繩, 雖明如王晉三, 葉天士, 猶率意用之.
32) 吳鞠通著, 丁彰炫譯. 國譯溫病條辨. 서울. 집문당. 2004. p.730.
33) 日本東洋醫學會. 善本翻刻傷寒論·金匱要略.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384.
34) 淸代 醫家인 沈明宗으로 字가 目南이다. 『傷寒六經辨證治法』, 『張仲景金匱要略』 등을 저술하였다.
35) 吳鞠通著, 丁彰炫譯. 國譯溫病條辨. 서울. 집문당. 2004. p.730 : 考金匱金瘡門中王不留行散, 取用桑東南根白皮以引生氣, 燒灰存性以止血, 仲景方後自注云, 小瘡卽粉之, 大

www.kci.go.kr

서 肝經을 實하게 한다고 하였고, 肝經이 내려가서 陰器에 絡하는 것, 腎經이 위로 올라와 肝, 肺, 心에 연결되는 것 등의 유주에 근거하여 桑白皮를 上焦의 肺로부터 下焦의 肝, 腎으로 달려가는 약으로 규정하였다[37]. 地骨皮도 뿌리가 땅 속 깊이 뻗는 특성과 명칭의 유래를 들어 少陰의 氣를 품고 骨까지 들어가 骨蒸의 勞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38].

또한 吳鞠通은, 자신의 從妹가 어려서 桑白皮를 잘못 복용하여서 50세가 다 된 지금도 기침이 낫지 않는 지병을 갖게 되었다고 醫案에서 소개하고 있다.

吾從妹八九歲時, 春日患傷風咳嗽, 醫用杏蘇散加桑白皮, 至今將五十歲, 咳嗽永無愈期, 年重一年, 試思如不可治之嗽, 當早死矣, 如可治之嗽, 何以至四十年不愈哉, 亦可以知其故矣. 遇見小兒久嗽不愈者, 多因桑皮地骨, 凡服過桑皮地骨而嗽不愈者, 即不可治, 伏陷之邪, 無法使之上出也. 至於地骨皮之不可用者, 餘因仲景先師風寒禁桑皮而悟入者也[39]. 【溫病條辨·瀉白散不可妄用論】

이 醫案에서, 桑白皮와 地骨皮를 잘못 사용하여 오랫동안 기침이 낫지 않고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아래로 끌고 들어간[伏陷] 邪氣를 다시 나오게 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吳鞠通은 따라서, 瀉白散은 열병을 앓고 난 후 또는 소아의 痘疹을 앓고 난 후에, 外感의 증상은 이미 다하였고 眞氣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咳嗽, 上氣, 虛熱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으며[40], 李時珍이 말한 대로 肺를 瀉하는 여러 처방 중의 표준[準繩]은 아니라고 보았다.

3. 瀉白散에 대한 諸家들의 견해

1) 李時珍, 王晉三, 葉天士의 견해

우선 吳鞠通이 비판한 李時珍, 王晉三, 葉天士 등의 瀉白散의 方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時珍은 1624년에 간행한 『本草綱目』에서 桑白皮는 利小便의 효능이 있어서 肺가 實할 때 '實則瀉其子'의 원칙에 따라서 肺를 瀉하는 약이므로, 肺 중에 水氣가 있고 火氣가 유여할 때 쓴다고 하였다.

桑根白皮[41]

... 時珍曰, 桑白皮長於利小水, 乃實則瀉其子也, 故肺中有水氣及肺火有餘者宜之. 十劑云, 燥可去濕, 桑白皮, 赤小豆之屬是矣. 【本草綱目】

水氣를 없애기 때문에 『本草綱目』의 「十劑」篇을 인용하여[42] 桑白皮를 燥濕하는 약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錢乙의 瀉白散을 언급하면서 桑白皮와 地骨皮 모두 소변을 통하여 火를 瀉하는 약이며 따라서 瀉白散은 肺를 瀉하는 모든 처방들의 準繩이 된다고 하였다[43]. 단, 羅天益의 말을 인용하여, 肺의

瘡但服之, 產後亦可服, 如風寒, 桑根勿取之. 沈目南注云, 風寒表邪在經絡, 桑根下降, 故勿取之.

36) 箕星 : 28宿의 하나로 靑龍으로 상징되는 東方7宿의 마지막 별자리이다.

37) 吳鞠通著, 丁彰炫譯. 國譯溫病條辨. 서울. 집문당. 2004. pp.730-731 : 愚按, 桑白皮雖色白入肺, 然桑得箕星之精, 箕好風, 風氣通於肝, 實肝經之本藥也. 且桑葉橫紋最多而主絡, 故蠶食桑葉而成絲, 絲, 絡象也, 桑皮純絲結成象筋, 亦主絡, 肝主筋, 主血, 絡亦主血, 象筋與絡者, 必走肝, 同類相從也. 肝經下絡陰器, 如樹根之蟠結於土中, 桑根最爲堅結, 詩稱徹彼桑土, 易言系於苞桑是也. 再按, 腎脈之直者, 從腎上貫肝膈, 入肺中, 循喉嚨, 挾舌本. 其支者, 從肺出絡心. 注胸中. 肺與腎爲子母, 金下生水. 桑根之性, 下達而堅結, 由肺下走肝腎者也. 內傷不妨用之, 外感則引邪入肝腎之陰, 而咳嗽永不愈矣.

38) 吳鞠通著, 丁彰炫譯. 國譯溫病條辨. 서울. 집문당. 2004. p.731 : 蓋凡樹木之根, 皆生地中, 而獨枸杞之根, 名地骨者何. 枸杞之根, 深入黃泉, 無所終極, 古又名之曰仙人杖, 蓋言凡人莫得而知其所終也. 木本之入下最深者, 未有如地骨者, 故獨異眾根, 而獨得地骨之名. 凡藥有獨異之形, 獨異之性, 得獨異之名者, 必有獨異之功能, 亦必有獨異之偏勝也. 地骨入下最深, 稟少陰水陰之氣, 主骨蒸之勞熱, 力能至骨, 有風寒外感者, 而可用之哉.

39) 吳鞠通著, 丁彰炫譯. 國譯溫病條辨. 서울. 집문당. 2004. p.731.

40) 吳鞠通著, 丁彰炫譯. 國譯溫病條辨. 서울. 집문당. 2004. p.730 : 愚按此方治熱病後與小兒痘後, 外感已盡真氣不得歸元, 咳嗽上氣, 身虛熱者, 甚良.

41) 李時珍. 本草綱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064.

42) 李時珍. 本草綱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63 : 燥劑, 之才曰燥可去濕, 桑白皮, 赤小豆之屬是也.

43) 李時珍. 本草綱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www.kci.go.kr

伏火를 瀉하는 것이 결국은 간접적으로 肺를 補하는 것이 된다고 하여[44], 瀉白散이 肺를 補하는 효능을 일부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王晉三은 1732년에 간행한 『絳雪園古方選註·內科』에서 辛味과 苦味의 작용을 대비하여 瀉白散[45]의 효능을 설명하였다. 즉, 『素問·藏氣法時論』에서 "肺欲收, 急食酸以收之, 用酸補之, 辛瀉之.", "肺苦氣上逆, 急食苦以泄之."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46], 桑白皮와 甘草는 氣가 薄하여 辛味처럼 肺의 본래 味이면서 瀉하므로 실제 肺를 상하지 않고 平肺할 뿐이며, 地骨皮도 苦味로서 肺의 陰火를 泄하는데 肺가 虛한 氣逆에 써서 虛熱을 물리치므로 平肺에 해당되어 黃芩, 黃連 등 苦寒한 약들의 작용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肺氣本辛, 以辛瀉之, 遂其欲也. 遂其欲當謂之補, 而仍云瀉者, 有平肺之功焉. 桑皮, 甘草, 其氣俱薄, 不燥不剛, 雖瀉而無傷於嬌臟. 茹用其所欲, 又何複其所苦, 蓋喘咳面腫, 急食苦以泄之. 然肺虛氣逆, 又非大苦大寒如芩連梔柏輩所宜, 故複以地骨皮之苦, 泄陰火, 退虛熱, 而平肺氣[47]. 【絳雪園古方選註·內科】

전체적으로 보면 王晉三은 平肺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虛熱 등을 泄하므로 瀉法에는 속하지만 肺를 상하지 않으면서 散肺하므로 瀉肺가 아니라 平肺라고 한 것이다. 甘草나 粳米도 肺를 직접 補하는 것이 아니라 桑白皮, 地骨皮의 성질을 완화시켜 淸肺定喘의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였다[48].

葉天士가 1766년에 간행한 『臨証指南醫案』을 살펴보면 瀉白散의 加減方에 대한 용법과 주의점이 기술되어 있다. 우선 『臨証指南醫案·幼科要略·春溫風溫』에서, 따뜻한 봄날에 溫邪에 감한 후 다시 冷氣가 들어와 咳嗽와 痰喘이 있을 경우에 辛味의 약을 써서 풀어야 한다고 하였다[49]. 이러한 春溫 또는 風溫은 겨울철의 伏邪와 관련이 있으며, 증상은 頭痛, 惡寒, 發熱 등이어서 表部를 발산시켜야 하는데, 辛溫한 약을 쓰지 않고 瀉白散에 前胡, 牛蒡, 薄荷 등의 辛凉한 약을 추가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春溫皆冬季伏邪, 詳於大方諸書, 幼科亦有伏邪, 治從大方, 然暴感爲多, 如頭痛惡寒發熱, 喘促鼻塞身重, 脈浮無汗, 原可表散. 春令溫舒, 辛溫宜少用, 陽經表藥, 最忌混亂, 至若身熱咳喘有痰之症, 只宜肺藥辛解, 瀉白散, 加前胡牛蒡薄荷之屬, 消食藥, 只宜一二味, 若二便俱通者, 消食少用, 須辨表裏上中下, 何者爲急施治[50]. 【臨証指南醫案·幼科要略·春溫風溫】

『臨証指南醫案·肺痺』에서도 瀉白散의 용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 肺가 嫩臟으로서 氣血이 모두 약하여 肺痺의 증상이 심해지면 성질이 가벼운 약으로 肺를 치료해야 하니 瀉白散의 가감방을 쓴다고 하였다. 葦莖湯은 肺熱을 泄하여 肺癰을 치료하고 痰을 없애는 처방으로 이를 사용한 후 氣血이 虛해진 것이다.

又, 風溫喘急, 是肺痺險症, 未及周歲, 臟腑柔嫩, 故溫邪內陷易結. 前用葦莖湯[51], 兩通太陰氣血, 頗驗, 仍以輕藥入肺, 晝夜豎抱, 勿令橫臥爲要. 用瀉白散法,

---

p.2064 : 宋醫錢乙治肺氣熱盛, 咳嗽而後喘, 面腫身熱. 瀉白散, 用桑白皮炒一兩, 地骨皮焙一兩, 甘草炒半兩. 每服一二錢, 入粳米百粒, 水煎, 食後溫服. 桑白皮地骨皮皆能瀉火從小便去, 甘草瀉火而緩中, 粳米淸肺而養血, 此乃瀉肺諸方之准繩也.

44) 李時珍. 本草綱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2064 : 元醫羅天益言其瀉肺中伏火而補正氣, 瀉邪所以補正也. 若肺虛而小便利者, 不宜用之.

45) 王子接. 絳雪園古方選註(中國醫學大成續集14).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207-208 : 瀉白散, 桑白皮一錢, 地骨皮一錢, 甘草五分, 白粳米百粒. 上爲末, 開水調服, 水一鍾, 煎八分, 溫服亦可.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88.

47) 王子接. 絳雪園古方選註(中國醫學大成續集14).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08.

48) 王子接. 絳雪園古方選註(中國醫學大成續集14).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08 : 淮南枕中記載, 西河女子用地骨皮爲服食, 則知泄氣而仍有補益之功. 使以甘草粳米, 緩桑骨二皮於上, 以淸肺定喘, 非謂肺虛而補之以米也.

49)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760 : 春月暴暖忽冷, 先受溫邪, 繼爲冷束, 咳嗽痰喘最多, 辛解忌溫, 只用一劑, 大忌絶穀. 若甚者, 宜晝夜豎抱, 勿倒三四日. 夫輕爲咳, 重爲喘, 喘急則鼻掀胸挺.

50)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760.

51)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802 : 千金葦莖湯, 葦莖, 苡仁, 桃仁, 瓜瓣.

www.kci.go.kr

桑白皮, 地骨皮, 苡仁, 冬瓜仁, 蘆根汁, 竹瀝[52]. 【臨証指南醫案·肺痺】

한편 『臨証指南醫案·幼科要略·秋燥』에서는 瀉白散에 黃芩, 黃連을 가하여 秋燥를 치료한 것을 비판하였다. 즉, 秋燥는 風溫과 발생의 기전은 다르나 증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三陽의 發散藥을 쓰지 말고 蔥豉湯[53]을 써야 하며[54], 粗工이 熱病인 줄로만 알아서 瀉白散에 苦燥한 黃芩, 黃連을 가하여 쓴 것은 胃의 津液을 없앤 것이니 辛凉甘潤한 약을 쓰면 氣의 燥함이 저절로 평안해져서 낫는다고 하였다.

更有粗工, 亦知熱病, 與瀉白散加芩連之屬, 不知愈苦助燥, 必增他變. 當以辛涼甘潤之方, 氣燥自平而愈, 慎勿用苦燥, 劫爍胃汁[55]. 【臨証指南醫案·幼科要略·秋燥】

또한 秋燥는 병이 血分으로 들어가기 전에 氣分에 있을 때에 급히 치료해야 하는데 庸醫가 일반적인 發散藥과 瀉白散에 黃芩, 黃連을 가한 처방을 연달아 투약한 실례는 잘못이라고 하였다[56]. 이때 소아의 경우는 胃氣를 같이 살아나게 해야 하므로 玉竹, 甘草, 廣皮, 竹葉 등으로 열을 내리면서 동시에 胃를 補하여 津液을 생하는 처방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57].

52)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293.
53)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808 : 葱豉湯, 葱白, 淡豆豉.
54)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p.743-744 : 秋深初凉, 稚年發熱咳嗽, 證似春月風溫症, 但溫乃漸熱之稱, 凉即漸冷之意. 春月爲病, 猶冬藏固密之餘. 秋令感傷, 恰值夏熱發洩之後, 其體質之虛實不同. 但溫自上受, 燥自上傷, 理亦相等, 均是肺氣受病. 世人誤認暴感風寒, 混投三陽發散, 津劫燥甚, 喘急告危. 若果暴凉外束, 身熱痰嗽, 只宜蔥豉湯. 或蘇梗前胡杏仁枳桔之屬, 僅一二劑亦可.
55)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744.
56)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744 : 秋燥一症, 氣分先受, 治肺爲急. 若延綿數十日之久, 病必入血分, 又非輕浮肺藥可醫. 須審體質症端, 古謂治病當活潑潑地, 如盤走珠耳. 翁姓子方數月, 秋燥潮熱, 咳嗽如瘧, 幼科用發散藥二日不效, 忙令禁乳, 更醫用瀉白散, 再加芩連二日, 晝夜煩熱, 喘而不咳, 下痢粘膩, 藥後竟痢藥水.

吳鞠通의 비판과 관련하여 이상 여러 醫家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李時珍은 桑白皮가 利小便함으로써 肺中의 水氣와 火를 없앤다고 하였는데 지나치게 瀉肺의 효능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며, 瀉肺의 결과 肺를 일부 補하게 되는 효능도 인식하였다. 王晉三의 경우는 『素問·藏氣法時論』의 苦欲補瀉 이론을 활용하여 方義를 설명하였는데, 그 목적은 瀉白散의 경우 補法과 瀉法이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아서 결국 平肺하는 효능이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葉天士는 春月의 風溫에 辛解法을 쓰는데 瀉白散에 辛凉한 약을 넣어서 써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風溫으로 肺痺가 생겨서 위험해진 경우에도 瀉白散의 加減方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瀉白散을 虛證이 겸한 경우에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風溫과 유사한 秋燥의 경우에 의사들이 瀉白散에 黃芩, 黃連 등이 苦燥한 약을 사용하여 胃의 津液을 말리는 것을 비판하였는데, 瀉白散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 加減의 잘못으로 본 것이다.

2) 기타 醫家들의 견해

吳昆이 1584년에 간행한 『醫方考·火門』에서는 上焦에 火가 있는 경우 瀉白散을 쓰는데 이때의 火를 단지 氣가 有餘하여 생긴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직접 淸熱하는 것이 아니라 桑白皮의 辛味로 實한 肺氣[邪氣]를 瀉하면 肺火를 없앨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桑白皮의 甘味로 元氣 또는 脾氣를 補한다고 하여 瀉白散을 補瀉를 겸한 처방으로 보았다. 이때 地骨皮와 甘草는 佐藥으로 각각 腎을 瀉하고 脾를 補하는 역할을 한다.

瀉白散, 桑白皮, 地骨皮各一兩, 甘草五錢. 肺火爲患, 喘滿氣急者, 此方主之. 肺苦氣上逆, 故喘滿, 上焦有火, 故氣急, 此丹溪所謂氣有餘便是火也. 桑白皮味甘而辛, 甘能固元氣之不足, 辛能瀉肺氣之有餘. 佐以地骨之瀉腎者, 實則瀉其子也, 佐以甘草之健脾者, 虛則補其母也. 此云虛實者, 正氣虛而邪氣實也. 又曰,

57)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744 : 延余診之, 余曰稚年以乳食爲命, 餓則胃虛氣餒, 肺氣更不爽矣. 與玉竹甘草炒廣皮竹葉心, 一劑熱緩, 繼與香粳米南棗廣皮甘草沙參二劑, 與乳少進, 令夜抱勿倒, 三日全愈.

www.kci.go.kr

地骨皮之輕, 可使入肺, 生甘草之平, 可使瀉氣, 故名以瀉白. 白, 肺之色也[58]. 【醫方考·火門】

1682년에 간행된 汪昂의 『醫方集解·瀉火之劑』에서는, 吳昆의 『醫方考』에서 桑白皮의 甘味가 元氣를 補하고 桑白皮의 辛味가 肺氣의 유여함을 瀉한다고 한 주장과, 李時珍의 『本草綱目』에서 桑白皮가 소변을 통하여 肺의 水氣를 없앤다고 한 주장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또한 瀉白散이 肺經氣分의 火를 瀉하는 것에 비하여 黃芩一物丸, 丹溪淸金丸 등은 肺經血分의 火를 瀉한다고 하였다.

瀉白散[肺火, 錢乙], 治肺火皮膚蒸熱, 灑淅寒熱, 日晡尤甚, 喘嗽氣急[皮膚蒸熱, 肺主皮毛也, 灑淅寒熱, 邪在膚腠也, 日晡尤甚, 金旺於酉也, 肺苦氣上逆, 故咳嗽喘急, 輕按即得, 重按全無, 是熱在皮毛, 日西尤甚爲肺熱.]. 桑白皮, 地骨皮一錢, 甘草五分, 粳米百粒, 易老加黃連. 此手太陰藥也, 桑白皮甘益元氣之不足, 辛瀉肺氣之有餘, 除痰止嗽[性善行水瀉火, 故能除痰, 痰除則嗽止.], 地骨皮寒瀉肺中之伏火, 淡洩肝腎之虛熱, 涼血退蒸[肝木盛能生火, 火盛則克金, 腎爲肺子, 實則瀉其子.], 甘草瀉火而益脾, 粳米淸肺而補胃[土爲金母, 虛則補其母.], 並能瀉熱從小便出, 肺主西方, 故曰瀉白[李時珍曰, 此瀉肺諸方之準繩也, 瀉白散瀉肺經氣分之火, 黃芩一物湯, 丹溪靑金丸, 瀉肺經血分之火, 淸金丸即黃芩炒爲末水丸.][59]. 【醫方集解·瀉火之劑】

또한 汪昂은 여러 醫書로부터 인용한 다양한 瀉白散의 加減法을 소개하였는데[60], 人參, 五味, 茯苓, 靑皮, 陳皮 등을 가하여 嘔吐의 겸증을 치료하고, 知母, 黃芩, 桔梗, 靑皮, 陳皮 등을 가하여 煩熱口渴, 胸膈不利 등의 겸증을 치료하고, 甘草와 粳米를 除하고 黃芩, 知母, 麥冬, 五味, 桔梗 등을 가하여 肺와 咽喉의 여러 증상들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1742년에 吳謙 등이 편찬한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61]에서는 淸代 醫家 季楚重의 말을 인용하여 上焦에 氣鬱과 火鬱이 있을 때 瀉白散을 쓴다고 하였고, 특히 桑白皮의 성질은 潤辛하고 地骨皮의 성질은 輕寒하다고 하였다. 또한 火熱이 肺를 상했을 때 白虎湯을 써서 標를 치료하고 虛火가 있을 때는 生脈散으로 本을 치료하는데, 瀉白散은 標本을 겸치하여 이 두 처방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集註, 季楚重曰, 經云肺苦氣上逆, 上逆則上焦鬱熱, 氣鬱生涎, 火鬱生熱, 因而制節不行, 壅甚爲喘滿腫嗽. 白者, 肺之色, 瀉白, 瀉肺氣之有餘也. 君以桑白皮, 質液而味辛, 液以潤燥, 辛以瀉肺. 臣以地骨皮, 質輕而性寒, 輕以去實, 寒以勝熱. 甘草生用瀉火, 佐桑皮地骨皮, 瀉諸肺實, 使金淸氣肅而喘嗽可平. 較之黃芩, 知母, 苦寒傷胃者, 遠矣. 夫火熱傷氣, 救肺之治, 有三實, 熱傷肺, 用白虎湯, 以治其標. 虛火刑金, 用生脈散, 以治其本. 若夫正氣不傷, 鬱火又甚則瀉白散之淸肺調中, 標本兼治, 又補二方之不及也[62].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

李東垣의 『醫學發明』에서도 肺熱이 輕할 경우에 瀉白散을 쓰고 重하면 凉膈散, 白虎湯, 地骨皮散을 쓰라고 하였다[63].

또한 『醫宗金鑑·雜病心法要訣』에서는 汪昂의 『醫方集解』와 마찬가지로 瀉白散의 加減法을 설명하고

58) 吳昆. 醫方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59.
59) 汪昂. 醫方集解.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6. p.293.
60) 汪昂. 醫方集解.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6. p.294 : 本方加人參, 五味, 茯苓, 靑皮, 陳皮, 亦名加減瀉白散[東垣], 治咳嗽喘急嘔吐. 本方加知母, 黃芩, 桔梗, 靑皮, 陳皮, 亦名加減瀉白散[寶鑒], 治咳而氣喘, 煩熱口渴, 胸膈不利. 本方除甘草, 粳米, 加黃芩, 知母, 麥冬, 五味, 桔梗, 亦名加減瀉白散[羅謙甫], 治過飮傷肺, 氣出腥臭, 唾涕稠黏, 嗌喉不利, 口苦乾燥[原文云, 桑皮地骨, 味苦微寒, 降肺中伏火, 而補氣爲君, 黃芩知母, 苦寒, 治氣出腥臭, 淸金利氣爲臣, 五味酸溫以收肺氣, 麥冬苦寒治唾涕稠黏, 口苦乾燥爲佐, 桔梗辛溫輕浮, 治痰逆, 利咽膈爲使也.].
61) 吳謙. 醫宗金鑑(第二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p.792-793 : 瀉白散, 治肺氣鬱熱咳嗽而喘面腫身熱. 桑白皮, 地骨皮, 甘草, 水煎服.
62) 吳謙. 醫宗金鑑(第二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793.
63) 李杲. 醫學發明.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48 : 肺熱者, 輕手乃得, 但微按全无, 是瞥瞥然見於皮毛之上, 日西尤甚. 乃皮毛之熱, 其證必見喘咳, 洒淅寒熱. 輕者, 瀉白散, 重者, 宜凉膈散, 白虎湯, 地骨皮散.

www.kci.go.kr

있는데, 우선 瀉白散을 肺經火鬱氣分에 쓰는 처방으로 규정하고 만약 外寒이 肺火를 鬱하였을 때는 麻黃, 杏仁을 가하고, 肺經의 火가 血分으로 들어가 外證이 없고 面赤이 있을 때에는 黃芩을 가하고, 內熱이 심할 때에는 黃連을 가하고, 嘔逆을 겸할 때에는 靑皮, 橘紅, 半夏를 가하고, 火鬱로 失音할 때에는 訶子肉, 桔梗을 가하고, 停飮으로 喘咳, 面浮, 不得臥가 있을 때에는 葶藶을 가하라고 하였다[64]. 外寒이 겸하여 있는 경우에도 瀉白散에 辛溫한 약을 가하여 사용하는 점이 특이하다.

1865년에 費伯雄이 간행한 『醫方論·瀉火之劑』에서는 瀉白散이 肺火를 瀉하면서 동시에 脾胃를 補하는 顧母法의 처방이니 黃連을 가하면 입방의 취지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계하였다. 이는 『醫方考』에서 吳昆이 桑白皮의 甘味가 元氣를 補한다고 한 것과 취지가 비슷하다.

瀉白散, 桑白皮, 地骨皮一錢, 甘草五分, 粳米百粒, 易老加黃連.

肺金有火則淸肅之令不能下行, 故灑淅寒熱, 而咳嗽喘急. 瀉肺火而補脾胃, 則又顧母法也. 若加黃連, 反失立方之旨[65].【醫方論·瀉火之劑】

3) 張山雷의 『小兒藥證直訣』 주석

張壽頤는 字가 山雷로 1922년에 『小兒藥證直訣箋正』을 지어 『小兒藥證直訣』의 각 조문마다 자신의 주석을 달았는데[66], 우선 瀉白散에 대하여 오직 肺火가 鬱結된 것을 아래로 내리는 처방이며 桑白皮와 地骨皮는 주로 鬱熱을 淸泄하며 潤肺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단, 寒邪에 感하였을 때에는 오용하지 말도록 경계하였다.

此爲肺火鬱結, 窒塞下降, 上氣喘急者之良方. 桑白地骨, 淸泄鬱熱, 潤肺之燥, 以復其順降之常. 惟內熱上擾, 燥渴舌降者爲宜. 若外感寒邪, 抑遏肺氣, 鼻塞流涕, 咳嗽不爽, 法宜疏泄外風, 開展肺閉者, 誤用是方, 淸涼抑降, 則更增其壅矣[67].

張山雷는 철저하게 瀉白散을 肺의 鬱火를 瀉하는 처방으로 보았으므로 '肺盛復有風冷' 조문에 瀉白散이 포함된 것은 착간으로 錢乙의 원문이 아니라고 하였다[68]. 風冷에는 따뜻한 약으로 발산해야 하는데 地骨皮와 桑白皮 같이 寒降한 약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肝熱에 瀉靑圓과 함께 瀉白散을 쓴 것도 원래 肺熱의 조문에 있던 내용이 傳寫의 잘못으로 옮겨 온 것으로 보았으며[69], 肺虛熱에 瀉白散을 쓴 것도 虛熱로 보기 어려우며 虛證에 散肺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70]. 또한 '咳嗽' 조문

64) 吳謙. 醫宗金鑑(第二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1088-1089 : 葶藶瀉白散, 瀉白肺火鬱氣分, 喘敓面腫熱無痰, 桑骨甘草寒麻杏, 血分加芩熱甚連, 敓急嘔逆靑橘半, 鬱甚失音訶桔添, 停飮喘嗽不得臥, 加苦葶藶效通仙. 註, 瀉白散, 即桑皮地骨皮甘草也. 治喘嗽面腫無痰身熱, 是爲肺經火鬱氣分. 若無汗, 是爲外寒鬱遏肺火, 加麻黃杏仁以發之. 若無外證惟面赤, 是爲肺經火鬱血分, 加黃芩. 內熱甚者, 更加黃連以淸之. 敓急嘔逆者, 加靑皮橘紅半夏以降之. 火鬱甚而失音者, 加訶子肉桔梗以開之. 若喘嗽面浮不得臥者, 是爲兼有停飮. 加苦葶藶以瀉之, 名葶藶瀉白散.

65) 費伯雄. 醫方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7. p.76.

66) 白裕相.『小兒藥證直訣』傳本에 대한 小考. 韓國醫史學會誌. 2004. 17(1). p.116.

67) 錢乙, 張山雷箋正. 小兒藥證直訣. 臺北. 宇宙醫藥出版社. 1962. p.108.

68) 錢乙, 張山雷箋正. 小兒藥證直訣. 臺北. 宇宙醫藥出版社. 1962. pp.12-13 : 胸滿短氣, 氣急喘嗽上氣, 皆肺有實邪, 當先散肺, 是也. 然所謂散肺者, 卽發散風冷, 以開泄肺家閉塞之氣, 當用麻防蘇杏荊芎桑葉紫菀兜鈴之類, 必無寒涼遏抑之理. 條以散肺與發散風冷, 分作兩層治法, 已是可疑, 且散肺胡可概用瀉白, 須知地骨桑皮寒降之藥, 止可以瀉肺藏之鬱熱, 必不能散肺寒之窒塞. 此症此藥, 正是背道而馳, 如其誤與遏塞, 適以閉其風冷於內, 變證且不可勝言, 安得謂是發散. 仲陽之明, 必無此謬, 卽大靑膏亦豈對症之藥, 此條決非錢氏原文, 後之學者, 不可誤信. 且末句又謂肺不傷寒, 則不胸滿, 又豈有傷寒胸滿, 而可以瀉白散之寒涼, 抑降重其窒塞者 讀者必須具此慧眼庶不爲無稽之言所誤.

69) 錢乙, 張山雷箋正. 小兒藥證直訣. 臺北. 宇宙醫藥出版社. 1962. p.11 : 尋衣領及亂捻諸物, 皆肝陽肆擾, 而擧動失其常度, 是肝有內熱, 而驚將作矣, 故宜瀉靑. 然此證之手握諸物, 必皆堅固有力, 故知爲實熱, 可投是藥. 若神虛無主之循衣摸床, 則無力而緩緩循摸, 其神情狀態, 大是不同, 不可誤認. 喘悶而壯熱飮水, 則肺之鬱熱可知, 故用瀉白. 然此條壯熱飮水以下十一字, 明屬肺熱之症治, 何以幷入於肝熱條中, 以此知中陽是書, 爲傳寫者錯亂, 固已多矣.

70) 錢乙, 張山雷箋正. 小兒藥證直訣. 臺北. 宇宙醫藥出版社. 1962. p.13 : 脾主口唇, 唇色深紅, 當屬脾胃實熱, 何故以爲肺之虛熱. 如果肺虛有熱, 則當甘平補肺, 用沙參百合之類. 且熱旣屬虛, 何以云散. 而所以散虛熱者, 又是瀉白散一方, 上條則用以散肺之風冷, 此又用以散熱, 安有一方而可兼治冷

www.kci.go.kr

에 나오는 喘咳, 面腫, 不飮水, 身熱 등의 증상에는 風寒과 風熱을 분간하여 약을 써야 하니, 만약 寒飮으로 肺가 閉塞된 경우에 瀉白散을 쓰면 오히려 병을 억눌러 내릴 수 있다고 경계하였다.

所謂肺盛欬喘面腫, 卽肺實閉塞, 氣壅使然, 宜量度風寒風熱, 分別用藥. 瀉白散只可以治熱壅, 如是寒飮肺閉, 誤與桑皮地骨, 沈降遏抑, 則落井下石之禍也. 今之俗醫, 類多此誤, 且不獨桑皮不可妄用, 卽桑葉亦稟秋冬降氣, 寒邪作欬, 亦當知戒, 況其面目浮腫, 肺氣極閉者乎. 喉中痰聲, 大有實證, 豈可不辨, 概用阿膠[71].

즉, 당시의 俗醫들이 寒咳나 面目浮腫 등에 병증의 寒熱을 구분하지 않고 桑白皮나 桑葉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Ⅲ. 考察

吳鞠通은『溫病條辨』에서 아직 外感의 邪氣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瀉白散을 사용하면 桑白皮와 地骨皮의 성질에 따라 邪氣를 下焦의 肝, 腎으로 끌고 들어와서 병을 고착시키게 되니 수십년 동안 낫지 않는 咳嗽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단, 吳鞠通이 제시한 瀉白散의 주치증 가운데 日晡에 蒸熱이 심해지는 것은 肺虛로 인한 것이며 內傷에 쓰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瀉白散의 補하는 성질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吳鞠通이 비판한 李時珍, 王晉三, 葉天士 가운데 李時珍은 기본적으로 瀉白散이 利水를 통하여 肺의 熱을 瀉하는 처방으로 보았으며 특히 桑白皮를 肺의 水氣나 痰을 없애는 燥한 약이라고 하였다. 肺를 補하는 효능은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王晉三은 苦欲補瀉의 이론을 활용하여 瀉白散의 補하고 瀉하는 효능이 분명하게 나뉘지 않음을 설명하고 平肺의 개념으로 이를 정리하였다. 즉, 實火가 아닌 陰火로 인한 虛熱을 없애므로 瀉한다고 할 수 없으며 氣를 泄하면서 동시에 補益하는 공이 있는 작용을 平肺의 개념으로 보았다. 葉天士는 風溫에 辛解法으로서 瀉白散에 辛凉한 약을 가하여 사용하였으며 氣血이 손상되어 虛證이 심해진 肺痺에도 이를 활용하였다. 이는 瀉白散이 肺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肺의 虛한 상태도 함께 고려한 가벼운 처방으로 본 것이며, 주로 風溫의 사기를 흩어버리는 데에 사용하였다. 단, 風溫과 유사한 秋燥에 의사들이 瀉白散에 黃芩, 黃連 등이 苦燥한 약을 가하여 쓰는 것을 비판하였다.

기타 醫家들은 대체적으로 瀉白散이 補瀉의 효능을 겸한다고 설명하였는데, 吳昆은『醫方考』에서 桑白皮의 辛味로 肺氣를 瀉하고 甘味로 元氣나 肺氣를 補한다고 하였으며, 汪昂은『醫方集解』에서 桑白皮가 소변을 통해 肺를 瀉한다는 李時珍의 설과, 桑白皮의 甘味가 元氣를 補한다는 吳昆의 설을 모두 채택하였다. 또한 汪昂은 瀉白散의 다양한 加減法을 제시하였는데 中焦에서 水穀을 들이지 못하거나 胸膈이 막혀서 熱이 뭉치거나 上焦의 肺와 咽喉에 여러 증상들이 발생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응용하였다. 吳謙의『醫宗金鑑』에서는 白虎湯, 生脈散과 비교하여 標本을 겸치하는 처방으로 인식하였고 汪昂과 마찬가지로 瀉白散의 다양한 加減法을 제시하였다. 근대에『小兒藥證直訣』에 전면적으로 주석을 가한 張山雷는 瀉白散을 철저하게 肺의 鬱火를 瀉하는 처방으로 보았으며, 邪氣가 風寒인지 風熱인지를 구분하여 반드시 風熱證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李時珍과 張山雷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醫家들은 瀉白散이 補瀉의 효능을 겸하거나 表裏를 겸치한다고 보았다. 1682년에 간행된 汪昂의『醫方集解』에 이미 다양한 加減法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상에서 表裏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에 통상적인 처방으로서 多用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葉天士는 風溫의 邪氣가 들어온 경우에도 瀉白散에 辛凉한 약을 가하여 사용한 것을 보면 表邪가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吳鞠

熱之理. 種種疑竇, 錢仲陽何竟如此. 若曰脾爲肺母, 脾熱瀉子, 正合古人實則瀉子之法, 然終不可謂是肺虛熱也.

71) 錢乙, 張山雷箋正. 小兒藥證直訣. 臺北. 宇宙醫藥出版社. 1962. p.50.

www.kci.go.kr

通이 外感의 表邪가 남아있는 경우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表裏, 內外, 寒熱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추세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瀉白散의 方義가 肺實을 瀉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臟腑가 아직 취약한 小兒의 처방으로 개발된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小兒藥證直訣』의 瀉白散證에서 肝病이 겸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적어도 陰分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때 성인처럼 강한 약을 써서 肺火를 瀉할 수는 없는 것이다. 桑白皮와 地骨皮가 黃芩, 黃連처럼 苦燥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肺虛熱證에 瀉白散을 소량을 복용하라고 한 것은 소아의 취약함 때문에 경계한 것이다. 또한 肺에 水氣가 있다는 것도 肺氣가 虛하여 宣發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葉天士는 瀉白散에 黃芩, 黃連을 가한 加減方이 胃의 津液이 고갈시킨다고 경계하였는데, 이는 肺實證의 이면에 津液의 부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吳謙은 『醫宗金鑑』에서 桑白皮의 質은 津液이 풍부하여 潤燥한다고 하였고, 張山雷의 『小兒藥證直訣箋正』에서도 桑白皮와 地骨皮가 潤肺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으니, 瀉白散은 潤肺의 효능이 있으며 이것도 또한 넓은 의미의 補法에 해당된다.

瀉白散이 補瀉를 겸하고 있고 다양한 加減法이 알려져 있으나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통용방이라 할 수는 없다. 汪昂은 『醫方集解』에서 瀉白散이 肺經氣分의 火를 瀉하는 것에 비하여 黃芩一物丸, 丹溪淸金丸 등은 肺經血分의 火를 瀉한다고 하였다. 王晉三은 『絳雪園古方選註』에서 瀉白散의 효능이 肺虛氣逆으로 인한 虛熱에 平肺하는 것이므로 黃芩, 黃連 등 苦寒한 약들의 작용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葉天士는 『臨證指南醫案』에서 秋燥는 血分으로 병이 들어가기 전에 氣分에 있을 때에 급히 치료해야 하는데 庸醫가 瀉白散에 胃汁을 없앨 수 있는 黃芩, 黃連을 가하여 쓴 것을 비판하였고, 胃氣를 補하고 津液을 생하는 치법을 병용하였다. 費伯雄도 『醫方論』에서 黃連을 가하면 입방 취지에 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종합해 보면, 瀉白散은 병이 아직 氣分에 있고 虛熱이 나타나 津液을 보존하여야 할 때 쓰는 처방임을 알 수 있다. 『醫宗金鑑』에서도 瀉白散을 肺經의 火가 氣分에 鬱한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葉天士는 瀉白散에 苦燥한 黃芩, 黃連을 가하여 쓰면 胃의 津液을 없애므로 辛凉甘潤한 약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瀉白散에 黃芩, 黃連을 가하여 사용한 예는 1390년에 朱橚 등이 편찬한 『普濟方』에서 찾을 수 있는데[72], 張元素와 王好古의 가감법을 인용하여 黃連과, 黃芩, 梔子 등을 가하여 쓸 수 있다고 하였다. 단, 氣分과 血分을 가려서 써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醫方集解』의 가감법을 보면 羅天益의 『衛生寶鑑』에 나오는 加減瀉白散[73]을 인용하였는데, 黃芩, 知母 등을 가하여 氣息腥臭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는 血分으로 병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醫宗金鑑』에서도 肺經의 火가 血分에 鬱하였을 때 黃芩을 가하고 內熱이 심하면 黃連까지 쓰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肺의 病邪가 氣分에서 血分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만 瀉白散에 黃芩, 黃連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葉天士가 瀉白散證에 辛凉甘潤한 약을 써야 하며 辛解法으로서 前胡, 牛蒡, 薄荷 등의 辛凉한 약을 瀉白散에 가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少陽人 荊防瀉白散[74]에서 羌活, 獨活, 荊芥, 防風 등의 風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72) 朱橚. 普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52 : 瀉白散, 瀉肺脾熱. 目黃口不吮乳, 喘嗽. 桑白皮一兩剉炒黃, 地骨皮一兩, 甘草半兩炒. 右爲細末, 每服一二錢, 水一盞, 入粳米百粒同煎, 食後服. 易老加黃連. 海藏云, 治肺熱, 傳骨蒸自汗, 用此以直瀉之. 梔子黃芩亦能瀉肺, 當以氣血分之.

73)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47 : 加減瀉白散, 桑白皮三錢, 桔梗二錢, 地骨皮, 甘草炙各一錢半, 知母七分, 麥門冬, 黃芩各五分, 五味子二十箇. 右㕮咀, 作一服. 水二盞, 煎至一盞, 去柤溫服, 食後. 忌酒麵辛熱之物, 日進二服. 論曰, 梁氏膏粱之子, 因洪飮大熱之氣所傷, 滋溢心火, 刑於肺金, 故以桑白皮, 地骨皮, 苦微寒降肺中伏火而補氣, 用以爲君. 黃芩, 知母苦寒, 治氣息腥臭, 淸利肺氣, 用以爲臣. 肺欲收, 急食酸以收之, 五味子之酸溫以收肺氣, 麥門冬甘苦寒, 治涕唾稠粘, 口舌乾燥, 用以爲佐. 길結體輕辛溫, 治痰逆, 利咽膈, 爲使也.

74)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p.702 : 荊防瀉白散, 生地黃三錢, 茯苓, 澤瀉各二錢, 知母, 石膏, 羌活, 獨活, 荊芥, 防風各一錢. 右方, 治頭痛, 膀胱滎躁者, 宜用.

www.kci.go.kr

또한 桑白皮의 약성에 대하여, 辛味가 발산하여 肺熱을 흩어버린다고 보는 것과 陰의 성질을 가지고 氣逆을 아래로 내린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張元素는『臟腑虛實標本用藥式』에서 辛味로 肺를 瀉할 때 桑白皮를 쓰라고 하였고[75], 王好古는『湯液本草』에서 桑白皮의 味가 苦酸하면서도 甘味와 辛味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76]. 기존의 本草書에서는 주로 甘味를 많이 언급하고 일부 苦味, 酸味 등을 부가하였는데 張元素와 王好古가 특히 辛味를 언급한 것은 苦欲補瀉에서 肺를 瀉하는 작용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吳鞠通은 桑白皮가 東方 箕星의 精을 받아서 下焦의 肝經을 實하게 하는 약으로 보았는데 이는 기존의 本草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물론 기존 本草書에서 苦味나 酸味를 일부 언급한 경우가 있으나, 吳鞠通의 이러한 주장은 外感의 表證이 있을 때 瀉白散을 오용하여 병세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강조하고, 또한 소아에게서 肺病과 肝病이 겸할 경우 瀉白散을 사용하는 임상 경험을 더욱 강조하여 나온 것으로 보인다.

Ⅳ. 結論

본 연구에서 瀉白散에 대한 吳鞠通의 '瀉白散不可妄用論'을 중심으로, 역대 醫家들이 瀉白散과 그 구성 약물에 대하여 제시한 관점들을 분석하였고 그 가운데 논쟁이 되는 부분들을 검토하였다. 논쟁의 핵심과 관련하여 瀉白散 方義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吳鞠通은 外感의 邪氣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瀉白散을 사용하면 주로 桑白皮와 地骨皮의 작용에 따라 邪氣를 下焦의 肝, 腎으로 끌고 들어와서 병을 고착시키게 되므로 誤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表邪가 남아있을 때 裏病의 약을 쓰지 않는 원칙과 같다.

2. 吳鞠通이 비판한 醫家들 가운데 李時珍은 瀉白散이 利水를 통하여 肺의 熱을 瀉하는 처방이며, 桑白皮를 水氣를 없애는 燥한 약으로 보았다. 王晉三은 苦欲補瀉의 이론을 활용하여 瀉白散의 補하고 瀉하는 효능이 분명하게 나뉘지 않음을 설명하고 平肺의 개념으로 이를 정리하였다. 葉天士는 風溫에 辛解法으로서 瀉白散에 辛凉한 약을 가하여 사용하였으며 氣血이 손상된 肺痺에도 이를 활용하였다. 특히 瀉白散을 肺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로 風溫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의사들이 秋燥에서 黃芩, 黃連 등 苦燥한 약을 瀉白散에 가하여 쓰는 것을 비판하였다.

3. 기타 醫家들은 대체적으로 瀉白散이 補瀉의 효능을 겸한다고 설명하였는데, 吳昆은『醫方考』에서 桑白皮의 辛味와 甘肥로 나누어 補瀉를 겸한다고 하였으며, 汪昂은『醫方集解』에서 肺를 瀉한다는 李時珍의 설과 桑白皮가 元氣를 補한다는 吳昆의 설을 함께 채택하였고, 吳謙의『醫宗金鑑』에서는 白虎湯, 生脈散과 비교하여 標本을 겸치하는 처방으로 인식하였다. 단, 근대의 張山雷는 瀉白散을 철저하게 肺의 鬱火를 瀉하는 처방으로 보았으며 반드시 風熱證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瀉白散의 方義가 肺實을 瀉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臟腑가 아직 취약한 小兒의 처방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肺를 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醫方集解』에서 다양한 瀉白散의 加減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虛實이 불분명한 肺病에 瀉白散을 多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吳鞠通의 주장은 表裏, 內外, 寒熱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추세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葉天士는 瀉白散을 운용하면서 胃의 津液이

75) 張元素. 臟腑虛實標本用藥式. 网易云閱讀. 1997 [cited 2019 20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yuedu.163.com/book_reader/3f1ddbf0b03a4ce7b1f39bdbca0baf31_4 : 脾苦濕, 急食苦以燥之[白術], 以苦瀉之[黃連], 實則瀉子[桑白皮]. 欲緩, 急食甘以緩之[炙甘草], 以甘補之[人參], 虛則補母. 肺苦氣上逆, 急食苦以洩之[訶子], 以辛瀉之[桑白皮], 實則瀉子[澤瀉].

76) 王好古. 湯液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69 : 桑白皮, 氣寒, 味苦酸, 甘而辛, 甘厚辛薄. 無毒, 入手太陰經.

www.kci.go.kr

고갈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吳謙과 張山雷 등도 桑白皮의 潤肺하는 효능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補法에 해당된다. 단, 桑白皮가 陰의 성질을 가지고 氣逆을 아래로 내린다는 주장은 表證이 있을 때 瀉白散을 오용하여 병세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강조한 것이며, 辛味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발산하는 작용으로 肺를 瀉하는 효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을 종합해 보면, 瀉白散은 병이 아직 氣分에 있고 虛熱이 나타나 津液을 보존하여야 할 때 쓰는 처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肺의 病邪가 氣分에서 血分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만 瀉白散에 黃芩, 黃連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葉天士가 瀉白散證에 辛凉甘潤한 약을 써야 하며 辛解法으로서 前胡, 牛蒡, 薄荷 등의 辛凉한 약을 瀉白散에 가하여 사용한 것은 少陽人 荊防瀉白散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1. Dept. of Sasang Medicine of Korean Medicine in Korea. Sasang Medicine. Seoul. Jipmundang. 1997.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2. Fei BX. Yifanglun. Bei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ublishing House. 1987.
費伯雄. 醫方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7.
3.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somun.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1.
4. Japan Society for Orietal Medicine. Shanghanlun and Jinguiyaolue. Tokyo. Japan Society for Orietal Medicine.. 2009. p.384.
日本東洋醫學會. 善本翻刻傷寒論·金匱要略.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384.
5. Li G. Yixuefaming. Bei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ublishing House. 2000.
李杲. 醫學發明.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6. Li SZ. Bencaogangmu(2).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House. 2002.
李時珍. 本草綱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7. Luo TY. Weishengbaojian.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House. 1963.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8. Qian Y. Xiaoeryaozhengzhijue.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House. 1991.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9. Qian Y, Zhangshanleijianzheng. Xiaoeryaozhengzhijue. Taibei. Cosmic Medicine Press. 1962.
錢乙, 張山雷箋正. 小兒藥證直訣. 臺北. 宇宙醫藥出版社. 1962.
10. Wang HG. Tangyebencao.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House. 1956. p.69.
王好古. 湯液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69.
11. Wang Y. Yifangjijie. Taibei. Wenguang Book Co., Ltd.. 1986.
汪昂. 醫方集解.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6.
12. Wang ZJ. Jiangxueyuangufangxuanzhu(Zhongyiyixue dachengxuji14).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00.
王子接. 絳雪園古方選註(中國醫學大成續集14).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13. Wu JT. Gukyeokonbyeongjobyeon. Seoul Jipmundang. 2004.

www.kci.go.kr

吳鞠通著, 丁彰炫譯. 國譯溫病條辨. 서울. 집문당. 2004.

14. Wu K. Yifangkao. Beijing. 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ess. 2007.
吳昆. 醫方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15. Wu Q. Yizongjinjian(2).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House. 2006.
吳謙. 醫宗金鑑(第二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16. Ye TS. Linzhengzhinanyian.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7.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17. Zhu S. Pujifang.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House. 1982. p.152.
朱橚. 普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52.
18. Baik YS.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using the Theory of Five Organs in『Soayakjeungjikgyeol』.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1. 24(6).
白裕相.『小兒藥證直訣』의 五臟辨證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6).
19. Baik YS. Notion of Descended Reference about『Soayakjeungjikgyeol』.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4. 17(1).
白裕相.『小兒藥證直訣』傳本에 대한 小考. 韓國醫史學會誌. 2004. 17(1).
20. Du TZ. A Study on Qianyixiebaisan. Shaanxi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4. 15(3).
杜天植. 錢乙瀉白散趨義. 陝西中醫. 1994. 15(3).
21. Su X. A Study on the meaning of Wutang's Xiebaisanbukewangyonglun. Heilongjia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55. 2(6).
蘇旭. 關于吳瑭氏瀉白散不可妄用論一文的機點意見. 黑龍江中醫藥. 1955. 2(6).
22. Yu J, Zheng A. A Study on in the disease of lung in Xiaoeryaozhengzhijue. Xinjia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6. 34(6).
于筠, 鄭愛. 小兒藥證直訣肺系疾患臨證特點淺析. 新疆中醫藥. 2016. 34(6).
23. Zhao H, Ren YQ. A Study on Xiebaisan. Du District Chinese Medicine. 2009. 11(24).
趙暉, 任耀全. 小義瀉白散. 杜區中醫藥. 2009. 11(24).
24. Zhang YS. Zhangfuxushibiaobenyongyaoxhi. Wangyiyunyuedu. 1997 [cited 2019 20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yuedu.163.com/book_reader/3f1ddbf0b03a4ce7b1f39bdbca0baf31_4
張元素. 臟腑虛實標本用藥式. 网易云閱讀. 1997 [cited 2019 20 January]; Available from: URL: http://yuedu.163.com/book_reader/3f1ddbf0b03a4ce7b1f39bdbca0baf31_4

www.kci.go.kr